

## 한·인도네시아 정상 및 장관급 회의 계기 양자 경제협력 확대 추진

- 2019년 6월 말 한·인도네시아 정상·장관급 회의가 연이어 개최되어 다양한 분야의 현안이 논의됨.
  - 2019년 6월 28일 G20 계기 일본 오사카 한·인니 양자 정상회담, 6월 26일 한·인도네시아 산업부 장관 회의, 6월 28일 국토교통부 부장관 인니 방문, 7월 1일 한·인니 외교부장관 면담 등 양국 간 정상 및 장관급 회의가 연이어 진행됨.
  
- 금번 인도네시아 정상 및 장관급 회의에서는 방위산업, 주력 산업(석유화학·자동차·철강) 투자, CEPA 협상 가속, 인프라 협력 등 주요 현안 등이 논의됨.

**표 1. 최근 한·인도네시아 정상 및 장관급 회의 내역**

주요 회의	개최지	일시	주요 논의 사항
정상회의	일본(G20)	2019.6.28	· 방산 협력: 잠수함, 전투기 · 주력 산업 협력: 석유화학, 자동차, 인프라 · 양자 CEPA 협상 가속
산업통상자원부	서울	2019.6.26	· 주력산업(철강, 자동차, 석유화학) 진출 제도 개선 및 인센티브 지원 · 양자 CEPA 연내 타결
국토교통부	자카르타	2019.6.28	· 인프라 시장 진출(경전철, 토목, 스마트 시티 등), PPP 협력 · 수도 이전 협력
외교부	서울	2019.7.1	· 세종시 건립 경험 공유

자료: 각종 보도 자료를 활용해 필자 작성.

- 상기 정상 및 장관급 회의 핵심 논의 사항은 한국 주력산업의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 및 CEPA 협상의 연내 타결 논의로 볼 수 있으며, 11월 개최 예정인 한·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개최에 맞춰 성과 사업 의제가 발굴될 것으로 예상됨.
  - 한국의 對투자자는 對베트남 투자에 비해 아직 낮은 비중이 작지만, 최근 석유화학·자동차 등 우리 주력산업의 대규모 투자를 계기로 양국 간 관련 산업의 추가 협력이 예상됨.
    - 교역( '18): 베트남(680억 달러, 43%), 인니(199억 달러, 13%), 싱가포르(197억 달러, 12%)
    - 투자(' 18): 베트남(31억 달러, 52%), 싱가포르(15억 달러, 26%), 인니(5억 달러, 8%)
    - \* 대아세안 교역 및 투자 비중
  
  - 2018년 연말 약 4조 원 규모의 석유화학 부문 투자 계획이 발표된 바 있으며<sup>1)</sup>, 최근 자동차 부문에서도 최대 연간 25만대 규모의 생산시설 투자 협의가 진행 중임.<sup>2)</sup>

- 한·인도네시아 CEPA는 2012년 1차 협상을 시작으로 2014년 7차 협상까지 진행된 후 상호 입장 차이로 추가 협상이 중단되었으나, 2019년 2월 협상 재개를 공식 선언한 후 4월에 8차 협상을 진행함.
- 한·인도네시아 CEPA는 기존 한·아세안FTA 및 RCEP를 넘어서는 수준의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기존에 RCEP를 통해 논의가 상당 진전된 규범 분야를 협상에서 제외하고 상품 및 서비스 부문에 집중함.
- 또한 협력 분야에서 혁신적 산업에너지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로 하고, CEPA 협상과 더불어 ‘한·인니 비즈니스 다이얼로그’ 를 통해 양국 비즈니스 확대 방안을 지속 논의함.



이재호 전문연구원

---

1) 한국경제(2018.12.17.) 「한인도네시아에 유화 단지…베트남에 복합단지, 신동빈의 新남방전략 탄력받았다」

2) 매일경제(2019.4.1.) 「현대차 인니 공장 설립 박차...동남아 전진기지 구축 나서」